

일부 근로자의 유효구강건강행태 및 직장구강검진에 관한 연구

김영임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A study on some workers' effective oral health behavior and workplace oral examination

Young-Im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Vision University of Jeonju

Received : 14 August, 2012
Revised : 11 March, 2013
Accepted : 9 April, 2013

Corresponding Author

Young-Im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Vision University of Jeonju

235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760, Korea,

Tel : +82-62-220-4103

+82-10-39948-6344

Fax : +82-62-220-4109

E-mail : yikim@jvision.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direction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our country's workers' by arranging data necessary for improving oral health program and system aiming to promote workers' oral health in the future is suggested in this study.

Methods : The questionnaire by self-administrated method, which wa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4th to December 31th, 2011 targeting 424 workers from 6 working places in Jellabuk-do Province.

Results : 1. It was indicated that workers' interest in oral health is higher than moderate and that workers are perceiving oral health as one of critical problems and thinking that the level of their oral health knowledge is low and oral health status is under moderate. 2. It was indicated that the rate of workplace oral screening is high, but the dissatisfaction ratio with workplace oral examination is high. Non-screening of medical treatment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after oral examination. 3. Factors of having influence upon the workplace oral examination included age, marital status, appearance, educational level, work-life term,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Conclusions : It is judged to be likely important to make them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oral health care through the accurate publicity of workplace oral examination and education on prevention of oral disease by reflecting workers' high interest in oral health.

Key Words : effective oral health behavior, oral examination, worker

색인 : 구강검진, 근로자, 유효구강건강행태

서론

현대사회에 이르러 건강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인간 행복의 한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뜻의 건강권이 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노동자 건강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우리나라 거대 인구집단인 근로자는 경제발전의 원천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체의 생산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을 발휘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관문으로서 행복을 영위하는 필수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²⁾.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강검사 제도가 생겨났으며, 1994년에는 치아부식증을 법정 직업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³⁾.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 구강검사를 포함으로써 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에 대하여 건강검진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가 구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정책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구강병을 예방하고 발생한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구강병으로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구강 보건의 일부이다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질이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 비교하면 향상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근로자 역시 예전과 비교하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강건강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에 진료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초기 치료를 위한 구강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건강검진은 그 결과가 다음에 통보받게 되어 있음에 비해 구강검진은 그 결과를 검진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수검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구강 상병의 조기발견과 구강보건교육, 구강병 관리를 위한 동기유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⁶⁾.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구강상병검진제도가 마련된 후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검진의 결과만을 통보해 줄 뿐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이나 직장 구강보건사업 등의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지향포괄구강진료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⁷⁾. 현재 시행 중인 직장구강검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이므로, 집단 구강검진이 갖는 목적을 달성하고

구강검진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모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근로자의 유효구강건강행태와 직장구강검진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직장구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구강검진사업의 계속적 필요성과 근로자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1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에 6개 사업장의 근무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설문이 배부된 연구대상자 500부 가운데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76부를 제외한 424부(회수율 84.8%)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설문에 사용한 문항으로는 송 등⁸⁾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유효구강건강행태 및 직장구강검진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내용으로는 유효구강건강행태로 구강건강태도와 구강건강행동, 구강보건교육요구도와 직장구강검진 인식에 대해 총 30문항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구강건강태도와 구강건강행동, 직장구강검진에 대한 인식, 구강보건교육요구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중요도, 주관적 구강건강지식수준과 구강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직장 구강검진수진유무(2년 이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값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여 판정하였으며,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콕스(Cox)와 스넬(Snell)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예측의 정확도를 예측력으로 산출하였다.

Table 1. Oral health attitude

Characteristics	Division	N(%)
Oral health concern	High	197(46.5)
	Medium	199(46.9)
	Low	28(6.6)
Oral health importance	Very important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health problems.)	100(23.6)
	Little important (It is not the most important but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284(67.0)
	Not important(It is not the important health problem.)	40(9.4)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High	56(13.2)
	Medium	162(38.2)
	Low	206(48.6)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Healthy	130(30.7)
	Usual	142(33.5)
	Not healthy	152(35.8)
Total		424(100.0)

연구성적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85.6%(363명)이고, 여자가 14.4%(61명)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33.9세이었고, 최연소자 연령은 19세였으며, 최고령자 연령은 67세였다. 평균 직장 생활 연한은 7.6년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7.6%(243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은 41.0%(173명), 대학원 재학 이상은 1.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71.2%(302명)로 사무직 근로자의 28.8%(122명)보다 많았다.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자가 40.6%(172명), 기혼자가 59.4%(252명)를 차지하였다(표 제시하지 않음).

2. 구강건강태도

근로자의 구강건강태도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46.9%, “높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문제 중요도는 “가장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구강건강 지식수준은 “낮다”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8.2%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3.7% 순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태도(관심도, 중요도, 주관적 구강건강지식수준, 구강건강상태)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도, 중요도, 주관적 구강건강지식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상관관계 결과 구강건강 관심도와 중요도($p < .05$), 구강건강 관심도와 지식수준($p < .01$), 구강건강 관심도와 구강건강상태($p < .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attitudes

Variables	factor one	factor two	factor three	factor four
Oral health concern	1			
Oral health importance	0.096*	1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0.281**	0.007	1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0.190**	0.053	0.049	1

* $p < .05$, ** $p < .01$

Table 3. Logistic regression for oral examinations in the work place influencing the factor

Variables	Statistic					
	B	S.E.	Wald	p	Correlation coefficient	Exp(B)
Age	1.026	0.363	8.000	0.005	0.120	2.789
Marital status(married)	0.907	0.258	12.356	0.000	0.212	2.476
Level of education	0.229	0.075	9.313	0.002	0.096	1.257
Working career(year)	0.334	0.126	6.976	0.008	0.109	1.396

Explanatory 0.132, Predictability 82.6%, p=0.000

4. 직장구강검진 수신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구강검진 수신 유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장생활연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연한이 길수록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기혼자인 경우가 미혼자인 경우보다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때의 비차비

는 2.476이었다(Table 3).

5. 구강건강 행동

근로자의 구강건강 행동에 관한 조사결과,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2.57회로 나타났으며, 하루 2회, 3회가 40.1%로 가장 많았고, 1회가 7.5%로 가장 적었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

Table 4. Oral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Division	N(%)
Toothbrushing times a day	Once a day	32(7.5)
	Twice a day	170(40.1)
	Three times a day	170(40.1)
	Least four times a day	52(12.3)
Toothbrushing time*	Before breakfast	154(36.3)
	After breakfast	272(64.2)
	After lunch	222(52.4)
	After a snack	34(8.0)
	After dinner	240(56.6)
	Before sleep	192(45.3)
Oral hygiene devices of being used (toothbrush excluded)	Dental floss	36(8.5)
	Mouth rinse	46(10.8)
	Interdental brush	64(15.1)
	Electric Toothbrushes	12(2.8)
	Unused	264(62.3)
	Other	2(0.5)
Within one year whether dental clinic	Yes	176(41.5)
	No	248(58.5)
Last visit purpose*	Treatment of dental caries	130(40.4)
	Prosthetic treatment	46(14.3)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	154(47.8)
	Orthodontics	12(3.7)
	Extraction	34(10.6)
	Prevention of dental disease	24(7.5)
	Other	10(3.1)
Total		424(100.0)

Double answer*

Table 5. Awareness of the oral examin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Whether oral examined or not in the work place (during the past 2 years)	Yes	245(57.8)
	No	179(42.2)
Satisfaction oral examination in the work place	Very satisfies	55(13.0)
	Satisfies	161(38.0)
	Dissatisfaction	170(40.0)
	Very dissatisfied	38(9.0)
Follow-up treatment due to oral examination in the work place	Need to care	74(17.5)
	Care will be needed	97(22.9)
	Do not care	211(49.8)
	Unnecessary care	42(9.8)
The need of education for oral health education during oral examination in the work place	Actively approval	82(19.3)
	Approval	319(75.2)
	opposite	21(5.0)
	Strongly oppose	2(0.5)
Total		424(100.0)

식사 후가 가장 많았으며, 저녁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는 근로자 중 칫솔 외에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으로 치간 칫솔, 구강 양치용액, 치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치과 방문 여부는 “있다”가 58.5%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 방문 목적은 치주질환치료가 47.8%로 가장 높았으며, 충치 치료, 보철 치료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6. 직장구강검진 인식

2년 이내 직장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57.8%이었다. 직장구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이 38.0%로 나타났다. 직장구강검진에 따른 후속 진료수진행동으로는 진료 비수진이 49.8%이었고, 구강검진 후 수진비율은 17.5%에 불과하였다. 직장구강검진 시 별도의 치과 상담시간을 두어 구강보건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7. 구강보건교육 요구도

지금까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초등학교 때”가 11.8%, “중고등학교 때”가 10.4%, “성인이 되어서”가 20.8%로 나타났으며, “없다”가 39.1%, “모르겠다”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50.9%로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가 21.2%, “필요하다”가 71.2%로 나타나 대다수 근로자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석할 의향으로는 “꼭 참석하겠다”가 20.5%, “가능한 참석하겠다”가 74.8%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내용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주조직 병 예방 및 치료법이 59.9%였으며, 치아우식예방법(48.6%), 구취 예방 및 치료법(38.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구강보건교육 방법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강연이었으며,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사내 포스터나 게시판이었다(Table 6).

Table 6.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Yes	182(43.0)
	No	166(39.1)
	No savvy	76(17.9)
Reason did not receive oral health education	Had the opportunity	216(50.9)
	Not interested	82(19.4)
	For lack of time	79(18.6)
	No need	11(2.6)
	Other	36(8.5)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awareness	Very necessary	90(21.2)
	Necessary	302(71.2)
	Unnecessary	30(7.1)
	Quite unnecessary	2(0.5)
Willing to participate in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work place	Attend	87(20.5)
	As possible to attend	317(74.8)
	non-attendance	20(4.7)
For the preferred oral health education*	Prevention of dental caries	206(48.6)
	Treatment of dental caries	70(16.5)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254(59.9)
	Oral hygiene management	116(27.4)
	Comprehensive dental knowledge	126(29.7)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alitosis	164(38.7)
	Orthodontics and dental bleaching	88(20.8)
	System or policies related to dental	10(2.4)
	Other	4(0.9)
Preferred method of oral health education*	Dentist or dental hygienist, speech	324(77.1)
	Movies like video clips made in advance	228(54.3)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pamphlets	156(37.1)
	Experiential education, such as toothbrushing performed	244(58.1)
	In company posters and bulletin board	56(13.3)
	Periodic delivery over the Internet	76(18.1)
Total		424(100.0)
Three choices per*		

총괄 및 고안

근로자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권장 및 직장구강검진 정책의 대책 수립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효 구강건강행태를 잘 파악하여 장기적인 구강보건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기능상실 때문인 경제적 손실과 근로 장애를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의 유효 구강건강행태 및 직장구강검진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며,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근로자의 구강보건태도 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46.9%, "높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문제 중요도는 "가장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구강건강 지식수준은 "낮다"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8.2%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3.7%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는 자신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지식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김 등¹⁰⁾이 성인의 43.7%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와 박¹¹⁾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71.7%로 나타났으며, 송 등⁵⁾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지식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3%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는 약 65% 정도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보통 이하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¹²⁾는 건강하지 않다가 77.8%라고 보고하였다.

직장구강검진 수진 유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장생활연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연한이 길수록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기혼자인 경우가 미혼자인 경우보다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젊은 연령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이 짧은 미혼의 근로자들에게도 구강검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최소한 직장 입사 시 일반구강검진 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송 등⁵⁾은 직장생활연한이 길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²²⁾의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연한이 길수록, 월평균 세대소득이 높을수록 직장구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근로자의 구강건강 행동에 관한 조사결과, 칫솔질 횟수는 하루 2회, 3회가 40.1%로 가장 많았고, 1회가 7.5%로 가장 적었다.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2.57회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시기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많았으며 저녁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등⁹⁾의 연구에서는 2.8회, 박¹³⁾의 연구에서는 2.65회로 나타났으며, 김¹⁴⁾은 2.71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칫솔질로 치면 세균막 제거 효과를 완벽하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여 치면 세균막 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¹⁵⁾. 이에 칫솔질 외 보조구강위생품을 사용은 조¹²⁾와 박¹³⁾의 연구에서는 구강 양치용액이 42.5%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간 칫솔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구강 양치용액 10.8%, 치실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의 62.3%가 보조 구강위생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매체를 이용하여 구강건강상태에 맞는 올바른 보조 구강위생품 사용방법에 대한 전문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¹⁶⁾고 사료된다.

2년 이내 직장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57.8%

이었다. 직장구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이 38.0%로 나타났다. 직장구강검진에 따른 후속 진료수진행동으로는 진료 비수진율이 49.8%이었고, 구강검진 후 수진비율은 17.5%에 불과하였다. 박 등¹⁷⁾과 김¹⁸⁾과 김 등¹⁹⁾, 고²⁰⁾의 연구에 의하면 진료수진을 28~75%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는 직장 내 구강검진수진자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검진 후 진료수진행동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⁹⁾ 직장 내의 구강검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구강검진 시 별도의 치과 상담시간을 두어 구강보건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구강보건 교육을 통하여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는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있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없다”가 39.1%, “모르겠다”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필요성 인식은 “매우 필요하다”가 21.2%, “필요하다”가 71.2%로 나타나 대다수 근로자는 직장에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석할 의향으로는 “꼭 참석하겠다” 20.5%,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가 74.8%로 조사된 결과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리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구강보건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 50.9%로 가장 높았다. 조¹²⁾는 근로자가 학령기에 학교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이후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강보건교육내용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주조직병 예방 및 치료법으로 59.9%의 선택율을 기록하였으며, 치아우식예방법, 구취 예방 및 치료법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구강보건교육방법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강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 등⁷⁾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Westerman²³⁾은 근로자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세균막관리 및 치면세마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치주조직이 건강해지고 치아우식증 치료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직장 내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치주조직병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강연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구강보건교육을 통하

여 근로자들은 직장구강검진 수진율의 제고와 함께 구강건강 상담과 구강진료로 이어지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론

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와 직장구강검진 인식을 조사하여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전라북도의 6개 사업장의 근로자 424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상으로 관심이 높고, 구강건강이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건강지식수준은 낮으며, 구강건강상태가 보통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자의 직장구강검진 수진율은 높은 반면 직장구강검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검진 후 진료 비수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직장구강검진수진유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결혼 유무, 교육수준, 직장생활연한이었다($p < 0.01$).
4. 근로자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직장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가능한 한 참여하겠다는 인식이 높았다.
5. 구강보건교육내용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치주조직병 예방 및 치료법과 함께 치과 의사나 치과위생사 강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여 직장구강검진의 정확한 홍보 및 구강병 예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WHO. Global strategy on occupational health for all : the way to health at work—Mov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Hanul publishing, 1997, pp 18-20.
2. Kim JB, Choi YJ, Moon HS, et al. Public oral health, Seoul, Komoomsa, 2006, pp 3-4.
3. The Ministry of labor. Standard for enforcing wokers' health diagnosis. Article 17. Notified by the Ministry of Labor, 1992, pp 92-99.
4. Lee TH, Ra SJ, Kim JB.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for oral health among industrial employee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1997; 21(2): 279-300.
5.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dentistry. Present status and task worker's health diagnosis project, Occupational Dentistry 1995; 4(1): 49-69.
6. Goh SY. A plan for managina constant wokers' oral health, Occupational Dentistry 1997; 6(1): 58-65.
7. Song JR, Oh HW, Lee HS. Workers' oral health behaviors and need for education in Iksan city.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007; 31(1):91-102.
8. Schou L. Oral health promotion at worksites, Int Dent J 1989; 39(2): 122-128.
9. Reisine ST. Dental disease and work loss, J Dent Res 1984; 63(9): 1158-1161.
10. Seo HS, Park KS. The study on the oral status and behavior or industrial workers at Choong Nam province, South, Korea,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003; 27(4): 641-653.
11. Kim YN, Kwon HK, Chung WG, Cho YS, Choi YH.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oral health with oral edidemiological indicators in Korean adult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005; 29(3): 250-260.
12. Cho SS. Recognition on oral health and its care by workers in enterprising plac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 Ang, 2000.
13. Park CS.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effective demand of works for dental treatment,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10(5): 819-829.
14. Kim BJ. Oral health consciousness among employees of a big motor company in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Master's thesis], Pusan: Univ. of Pusan National, 2004.
15. Park HR. A study on th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with labor of the D heavy industries, J Dent Hygiene Sci 2006; 6(2): 93-99.
16. Kim ME. A study on usage status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in service workers behavior,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008; 8(3): 37-51.
17. Park SY, Moon HS, Kim JB, Paik DI. A study on the knowledge, opinions and practices about oral health of workers in Korea, J Korean Acad Dental Health 1999; 23(2): 95-111.
18. Kim HY. Factors such as or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ree years on the research result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1994; 3(1): 10-30.

19. Kim HD, Koh DH, Lee BJ, et al. Reformation on the annual /bi-annual oral examination program for workers: for early detection and early treatment of oral disease. *J Korean Industrial Dental Health* 2003; 12(1): 1-15.
20. Goo SY. Oral health care management in the industrial setting.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Dental Health* 1997; 6(1): 58-65.
21. Koh DH, Kim HD, Moon HS, Baik DI, Kim JB. Factors influencing post dental care of annual oral examination for workers in Korea. *J Korean Industrial Dental Health* 2003; 12(2): 85-97.
22. Choi MH. A survey research on industrial workers' oral examination status and oral health educational request level.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10; 10(1): 185-194.
23. Westerman B. Appropriate dental care for employees at the workplace. *Aust Dent J* 1993; 38(6): 471-475.

